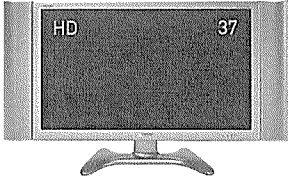


샤프전자, 저가 대형액정 TV 투입



샤프는 2월 8일, 종래 기종과 비교해 20~30% 낮은 가격대로 설정한 대형액정 텔레비전「아쿠오스 37 인치/32 인치」2 기종을 24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액정 텔레비전의 세대 보급률이 시장 확대의 판단기준인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시장점유율 1위의 이점을 살려 일거에 시장 쉐어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샤프는 2004년도에 국내시장 액정 텔레비전 판매를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0 만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는 41% 증가한 170 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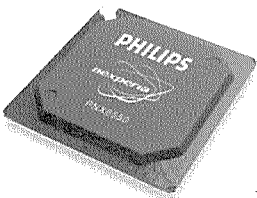
신제품은 작년 8월에 발매한「GD 시리즈」와 비교해 응답속도를 1.3 배의(12 밀리/초) 고속화하여 움직임이 빠른 장면에서도 뚜렷이 보이도록 했고, 여성들의 취향에 맞게 완만하게 굽어진 부드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은 37인치형이 50만 4,000엔, 32인치형이 35만 7,000엔으로 종래 기종과 비교해 24~32% 낮게 설정했다. 각각 월 9,000대, 1만 8,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샤프는 CRT 텔레비전은 1968년에 13.9% 이었던 세대보급률이 1년 후 26.3%, 2년 후에는 42.3% 로 급속히 확대된 바 있어 액정텔레비전도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56~58세)인 683만 명과 주니어 베이비붐 세대(31~34세)의 약 794만 명이 사용중인 제품이 서서히 교체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필립스전자, 차세대 이동통신솔루션 선보여



네덜란드의 대표적 다국적기업인 필립스가 무선통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선보인 차세대 모바일 시스템인 '넥스페리아(Nexperia)'가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립스사는 지난 2월 14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3G World Congress'에서 영국의 반도체 및 IT 관련 회로의 대표적인 디자인 업체인 'ARM'사와 공동으로 차세대 모바일 시스템인 '넥스페리아 셀룰러시스템솔루션 6120'을 제품을 발표했다.

NMDK(Nexperia Mobile Develop Kit)라고 명명지어진

넥스페리아 모바일시스템 솔루션의 특징은 차세대 모바일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인 멀티미디어 구현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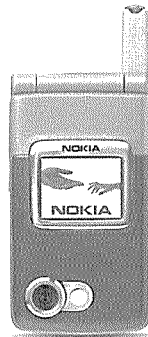
이번 필립스가 발표한 넥스페리아 시스템은 현재 세계 주요국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3G(제3세대) 무선통신서비스의 본격 도입에 앞서 2.5세대적인 에지(EDGE)시스템으로 당분간 노키아, 삼성, LG 등 모바일통신 단말기 생산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G는 무선통신의 제 3세대기기에 적용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규격으로 2기가 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전송속도가 최대 2Mbps에 달해 동영상, VOD, 음악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지역의 경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G서비스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보다 앞서 2.5세대라 불리는 에지(EDGE)가 전환기 시장의 역할을 차지하며 이와 관련된 단말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키아 휴대폰, 3년 뒤엔 중국이 최대시장

핀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는 전세계 휴대폰 가입자수가 2004년말 17억명에서 2010년에는 30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가입자수 중에 약 1/4이 중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일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키아의 중국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Jorma Ollila 노키아 회장은 2002년부터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노키아에게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서, 지난해 중국에 대한 휴대폰 및 통신장비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56%나 증가한 33억달러에 달했으며, 중국내 판매량은 44% 증가한 36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러한 호조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노키아는 현재 중국시장 점유율이 19~22%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2002년 16~17%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노키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서 미국의 1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몫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비중은 갈수록 더욱 높아져 3년 뒤에는 중국이 노키아의 최대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아는 Ningbo Bird 및 TCL Communication Technology Holdings 등 중국내 경쟁업체와의 경쟁에 대항하면서 지속적인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강화해 나가면서, 고가고급품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한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확충과 향후 18개월 이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3세대 휴대폰 서비스는 노키아의 중국시장 마케팅에 큰 활력소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히타치, 차세대 고속통신용 소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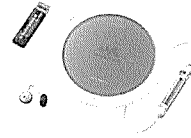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와 동경대학의 아라가와교수 팀은 차세대 고속통신에 불가결한 신호처리용 소자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광화이버를 통과하는 도중에 약화되는 광 신호를 복원해 고품질의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소자로 주요도시간 및 대도시권 내 통신에 사용되는 매초 40기가비트의 고속 통신용으로 2, 3년 후를 목표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광(光)은 파장에 따라 광화이버를 통과하는 속도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통신속도가 빠를수록 파형이 깨져 정보를 정확히 전송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개발 소자는 '포토닉스 결정'이라는 광학 소재를 사용해 광이 통과하는 속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화이버 통해 통신을 수신한 후, 이 소자를 통과시키면 신호의 파형을 조절할 수 있다. 시제품 소자는 2 미리 입방 크기로 소형이라 제조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수광소자와 일체화도 쉬운 장점이 있다. 히타치는 대량생산시 소자 한 개당 10 만엔 대에 판매할 예정이다.

소니, 플래시메모리 음악 플레이어 내보



소니가 애플 아이팟 서플을 겨냥해 플래시 메모리형 워크맨 음악플레이어 시리즈를 내놓는다고 2월 8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소니는 2월말까지 256MB와 512MB, 1GB를 장착한 7종의 워크맨 음악플레이어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저가제품인 256MB를 장착한 최저가형은 유럽시장에서 100유로(132달러) 이하에 공급될 예정이다. 1GB 제품은 240유로에 공급되며 45장 분량의 음악 CD를 노래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니는 또 일부 모델은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단 3분의 충전으로 3시간을 재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니는 26년전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를 개발, 개인용 오디오 시장을 20년 이상 지배해왔으나 애플의 아이팟과 한국의 MP3 제조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시장을 내준 상태다.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이 '워크맨'의 영광을 재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